

“천도교와 청소년의 심성교육”에 대한 논평

양 은 용
(원광대학교)

오늘날 천도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풍부하다. 동학·천도교가 근대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만큼 교조인 최제우(1824-1864)나, 동학의 창도(1860), 동학농민혁명(1894), 3.1 독립운동, 그리고 1930년대의 신문화운동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왔다. 그러나 불교나 그리스도교 등의 거대한 학제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군에 비하면 연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리라 생각한다.

이번과 같이 「청소년의 심성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주제에 들어가면 선행연구가 별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동학·천도교의 교의체계나 근본의를 설명하면서 주제에 접근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상적 기반을 밝히고 심성계발 프로그램이라는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배려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송준석 교수는 표제의 내용을 「사상적 기반」과 「심성계발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다시 전자에 있어서는 동학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아각성인, 자아완성인이라고 파악하고, 교육사상의 기반을 생명존중의 교육사상, 인간존중의 교육사상, 공동체주의의 심성교육, 예의범절의 심성교육으로 본다. 그리고 후자의 프로그램은 수도를 기본으로 하여 하계수련회, 성지순례, 수운예술제, 잡지발간, 한울학교 등 현재 천도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인성교육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송교수의 문제파악은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어진 교의사상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부분은 천도교의 현황에 바탕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학·천도교가 근현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사상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는 좀더 심층적인 접근이 요청된다는 느낌이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두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논지를 분명히 해 받고자 한다.

첫째, 동학·천도교에서 보는 과거교육에 대한 견해인데, 기존 가치관의 비판인식을 통해 독자적인 관점이 드러나리라 본다. 최제우의 종교운동, 즉 동학창도는 시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가르침이다. 한국신종교의 효시를 이루는 이는 본질적으로 기성 종교의 역할퇴보에 대응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며, 기왕의 가치관 내지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학에 대응한 동학이나, 선천에 대한 후천(後天)의 개벽사관(開闢史觀), 그리고 전통신앙과는 다른 시천주신앙(侍天主信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을 심성교육과 관련해 보면, 동학은 유학의 덕성교육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며, 이른바 서학으로 부른 그리스도교의 덕성교육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존 가치관과는 대비되는 「인내천」이나 「사인여천」의 교의에서는 동학의 인성교육을 「평등교육」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교육에서 바라보는 그것과는 어떤 관련과 구조적 특징이 있는가 밝혀져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천도교의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 심성계발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1930년대를 전후한 신문화운동에 기여해온 바가 점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시의 사조를 주도해 왔다고도 할 수 있는 『신인간』, 『개벽』, 『어린이』, 『학생』 등에는 청소년의 심성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질게 깔려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개벽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즉응(卽應)한 신인간운동, 그리고 여성존중·아동존중 등의 문화운동은 인간주의 교육운동이요, 심성교육과 관련해 보면 전인교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날의 천도교에서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시대를 향도하던 당시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응용되어야 하듯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해석에도 운동의 저변에 흐르는 역사인식 내지 그 사상이 재해석되어야 하리라는 요망이다.